

박근혜, 구치소 복귀...태극기 지지자들 “믿어요” 글성

어제 오후 성모병원에서 떠나 구치소 복귀 휠체어 타고나와 법무부 긴급호송차량 탑승 지지자들 병원 밖에서 “대통령님만 믿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다.

병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4분께 휠체어를 타고 서울 성모병원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고, 준

비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시종 굳은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오후 2시35분께 병원을 떠났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9명은 병원 앞에 모여 “힘내십시오. 저희는 대통령님만 믿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이 나올 당시 상황에 대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1차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시켜 2주간 격리하도록 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추가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재차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 전 대통령은 병원 및 서울구치소 의료진의 검토를 거쳐 복귀가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최이슬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들이 접종을 마친 후 이상반응을 보인 참가자를 응급처치 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전자파·발암물질 노출 위험, 배전 노동자 산재 인정을”

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지부, 배전 노동자 대상 현장 조사 등 대책 촉구

광주·전남 지역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배전 노동자들이 직업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지부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전 노동자들이 잇따라 말트 림프종·뇌암·폐암 등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다. 심지어 숨진 사례도 있다”면서 산업재해 승인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16년과 2018년 2만 2900V(볼트) 고압 설비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한 배전 노동자 고(故) 장상근씨, 임태성씨가 산업재해로 승인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책이 없다”며 “오히려 노조가 배전 노동자 10명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변변한 현장 조사 없이 4년 만에 불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수의 배전 노동자들은 2만 2900V의 활선 작업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변압기 절연유(O.T), 전압 전환 공정에 쓰이는 장비(COS)에서 나오는 석면을 비롯한 발암 물질에도 취약한 노동 환경이다”고 설명했다.

배전 노동자들의 공정과 발병 질환이 직무상 산업재대로 봐야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노조는 “2016년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배전 노동자를 대상으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가 9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전노동자가 작업 중 전기파 노출에 의해 겪는 직업성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로 벌인 역학 조사에서는 ‘전기원 노동자들의 활선작업은 감전 사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 뿐만 아니라 장기간 직업적 전자파에 의한 나쁜 건강영향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 노동자 대부분이 일반 회사원 대비 약 400배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2018년 보도자료 (‘장기간 고압선 작업을 수행이 극저주파 자기장에 수시 노출돼 백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판례(‘현재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명확한 입증은 곤란해도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등도 산재 승인 요구의 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간접 활선 방식으로 공법이 바뀌더라도 20여 년간 고압 전기에 노출돼 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전 자파로 인한 직업성 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집단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발주처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관련 주체들이 국가적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모 사립학교 교원채용 부정 의혹...위탁 확대를”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지역 모 사립학교의 신규 교원 임용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채용 전 과정을 시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지역 A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가 신규 교사를 채용하면서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각 학교 단위 2차 전형

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학교 관계자)이 시 교육청 위탁 1차 시험을 합격한 응시자(채용 정원 3~4배수) 관련 신상 정보 등을 미리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시험 합격자 이력서·자기소개서·대학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2차 전형 일주일 전부터 열람, 관련 정보를 학교 관계자들끼리 주고 받았다”며 “응시자들의 기간제

교사 경력에 있는 다른 학교에 전화를 걸어 부모의 재산 정도와 정치적 영향력 등 채용과 무관한 정보를 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학교 신규 교원 채용 2차 전형 위원 중 1명은 학교 관련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